

경주캠퍼스 부총장 최상범교수 임명



본교는 지난 5일 경주캠퍼스 부총장에 최상범(조경학) 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최상범 부총장은 서울시립대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본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주캠 학생처장과 자연과학대학장을 역임했다.

연구처 교원 9명 선정 내년 3월부터 1년간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는 연구처 및 해외연수 교원을 선정했다.

2002학년도 1학기 서울캠퍼스 연구원으로 선발된 교원은 △방현수(수학) △김해영(생물학) △손성(법학) △김용욱(식물지리학) △이원부(정보관리학) △김영태(전기공학) △장연수(토목환경공학) △홍성조(산업공학) △권동희(지리교육학)로 모두 9명이며, 2002학년 3월 1일부터 약 1년간 연구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삼익식(행정학) 교수는 해외연수 교원으로 선정돼 2002년 9월 1일부터 6개월간 독일에서 연수를 받는다.

무진장 스님 초빙 법회 '현대사회를 사는 방법'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내일(13일) 오후 4시 조계종 전포교원장 무진장 큰스님을 초청해 고승초빙법회를 연다.

'현대사회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법회는 학생, 교직원, 교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 결과 발표 재학생 28% 총 72억원

2001학년도 장학금 지급결과 재학생의 28%에 해당하는 7천여 명의 학생이 총 72억원 가량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금의 13%에 달하는 수치이며, 1인당 약 58만원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장학과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 권고 장학금액이 등록금 대비 10%인 것을 비추어 볼 때 본교는 장학금 수여 정도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 내일(13일)부터 3일간 '투표하는 날'

## 100분 토론회·2차 합동유세 등 막바지 선거운동 벌어져

제34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제17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주, 100분 토론회와 2차 유세가 열렸다. 투표는 내일(13일)부터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야간강좌 학생들은 오후 2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개표는 15일 자정부터 본관 중앙홀에서 한다.

▲2차 유세=지난 8일 동국관 앞에서 열린 2차 유세는 1차유세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이 공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선거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TV방송형식의 유세로 시선을 모은 총학 율후보 이재광(철4)·이동우(전기4)조는 "한총련 탈퇴 공약은 단지 선거용 이슈가 아니

며, 한총련 이적규정이 철폐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 투쟁을 위해선 탈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갑후보 주진완(국교4)·양희창(반도체3)조는 이어 "일산병원 초기개원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4천920명이 동참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동참하길 당부했다.

한편, 유세에 앞서 총학과 총여 후보, 불교대를 제외한 각 단과대 학생회 후보자들은 'K교수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K교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100분 토론회=본사를 비롯한 한 동국 포스트, DUBS, 교직원집 위원회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여·총학 후보자들

의 '100분 토론회'가 지난 6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패널들의 질문 후 후보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총학 후보에 대한 질의에서 패널들은 갑후보에게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양희창 후보는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등록금 책정 10대 원칙을 실현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어 율후보는 예산자치제 시행을 위한 자금 마련 방안이냐고 질문했다. "학교측이 교비 형태로 지원하는 자활동비를 확충

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부족



지난 6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100분 토론회가 열렸다.

하다면 총학생회로 들어오는 학생회비를 자치기금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총여 후보는 반성폭력 학칙 시행세칙의 제정에 대한 질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정도를 자세히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담원도 위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dmz@dongguk.edu

# '낮은 틀' 깨고 학생참여 유도해야

## 전자민주주의·학생회 체계 변화 등 다양한 시도

### 2002 학생회선거 - 위기와 기회의 기로에서 ③

90년대 후반 이후 학생회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갈수록 학생회는 대표성마저 상실해가고 있는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학생회 선거가 시작됐다. 매년 허락하는 투표율과 날대받는 후보자들의 유세는 이러한 학생회의 위기를 현실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선거는 무관심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3회에 걸쳐 집중 조명·분석하고, 나아가 학생회의 위기와 대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편집자

1. 설문조사 - 우리가 바라는 학생회
2. 학생회 후보자 좌담회
3. 대중적 학생회 가능성

학생회와 학생들간의 의사소통 단절, 학생들이 없는 학생회 행사 등 현재 학생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생회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몇몇 대학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지난해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본교 법대의 경우 지난해 학생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학생총회 개최를 준비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의 이용은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 대부분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학회, 소모임 등을 모을 수 있는 참여 공간을 학생회가 만들어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지는 움직임이 있다.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해 학과체계가 무너져 학생들의 의견개진이나 참여를 학과에서 유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공간의 확대를 통해 학생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기자 telme@dongguk.edu



합류 ... 지난 10일 열린 교수노조 출범식에서 교수들이 '우리도 노동자'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 교수노조 출범식 열려

## 제1기 위원장에 황상익 교수 선출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황상익·서울대 의학, 이하 교수노조) 출범식이 지난 10일 서울대에서 열렸다.

출범식에 앞서 창립 대의원 대회에서는 강령과 규약들을 채택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감사 등 제1기 교수노조 임원들을 선출했다.

또한 전국적인 조직형성 및 확충을 위한 공동사업 등 이후 교수노조가 펼칠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 지면안내

▶ 벤처, 21세기 경제체제의 주역 4면



올해로 '동국벤처주간'이 2회째를 맞았다. 학생과 함께 하는 벤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벤처창업경연대회를 마련했다. 이에 위기에 빠진 벤처업체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 미지 행성 X의 존재 가능성 5면

▶ 갈 길 먼 문화지구 선정 7면



### 정난정이 법구경을 놓고간 까닭은...

남 선 (불교방송 보도국 사회문화부장)

1. 만산협업 속의 삼청각은 벌원천지였다. 슬바람속에서 한편으론 계곡이 흐르고 미인이 있고 숲이 있었을 텐데... 왜 과거 이곳에서 나온 결론은 사람을 잡고 피를 보는 것일까? 뜻하지 않은 기회로 삼청각을 찾아 이 아름다운 속에 어찌 사악함이 나왔는가하는 궁금함만 지니고 돌아왔다.

지금 그곳은 서울시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사물놀이엔 많은 이들이 어깨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을 모시고 삼삼오오 앉은 이들은 광목 보자기에 한뼘 한뼘 정성을 쏟고 단아한 학을 하늘에 날린다. 민중을 다스리던 요정은 사라지고 민중의 즐거움이 지금 삼청각에서 펼쳐지고 있다.

2.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한 TV 역사 드라마... 짝이내겠다는 서릿발 같은 여인의 목소리가 귀를 찌르고, 남정네들은 갖은 책략으로 치부책에 있는 자기 이름을 찌른다. 그리고 마침내 피가 튀고 뼈가 부서지는 몸서리 속에 역전에 재역전이 연출된다. 연출기법인지는 몰라도 그룹별로 모이는 사람의 성격이 비슷하고 결론은 항상 자신들의 득이 되는 방향을 추구한다.

3. 예전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가을의 붉음속에서 고뇌하는 한 인간이 있었다. 결국 무엇을 깨달았는지 주인공은 무(無)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재미있게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며 보았지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을 현실의 잣대로는 짚 수 없었다.

4. 항 싸는 종이에서는 항내가 나고 생선을 깨었던 새끼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비구들의 말에 부처님은 이렇게 계승을 읊는다.

"나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뱀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조금씩 미혹해 허물을 익히다가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된다. (법구경 상요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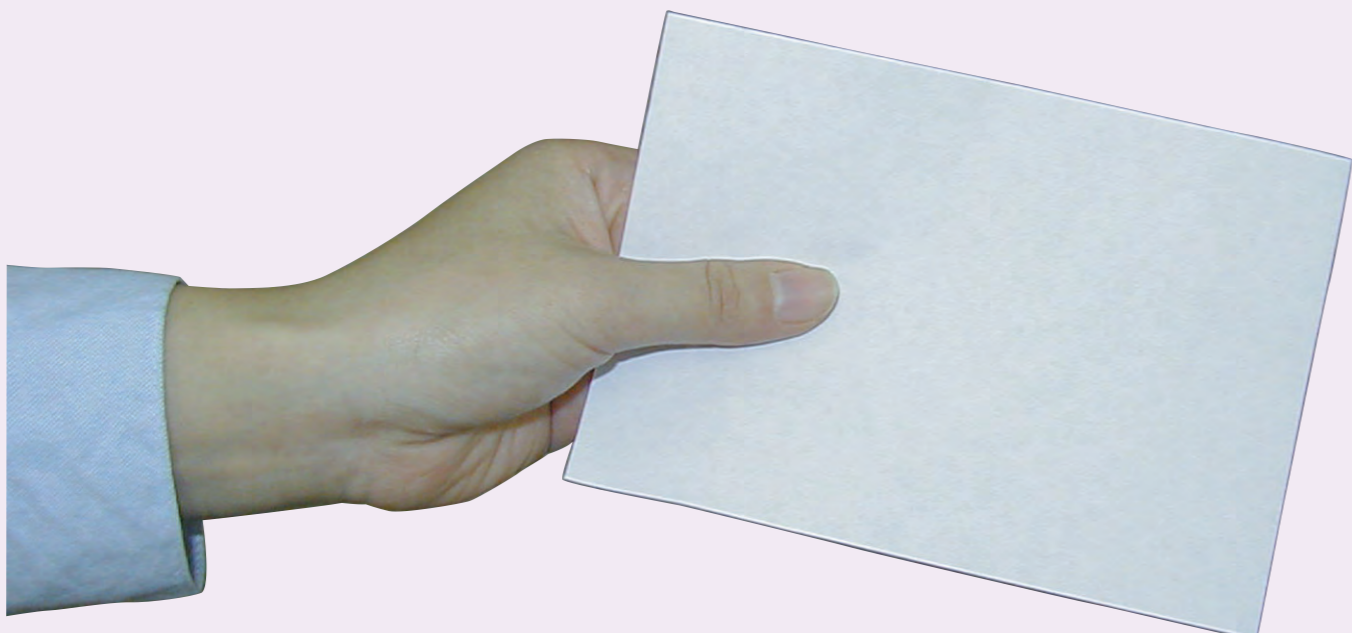
나는 지금 어디에 쌓여있을까?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ARS 7000-119

# 투표용지, 그대로 두면

# 종이일 뿐입니다



각 단과대와 총학생회 선거일은 **13.14.15**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후보 ○○○와 동약의 미래입니다.

동대신문사

## 사과대 졸업학점 완화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2002학년도 사회과학대(이하 사과대) 신입생부터 졸업학점이 120학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신입생이 전공을 선택하는 2004년부터 사과대 전공최저이수학점도 45학점으로 줄어든다.

또한 최저수강신청학점도 12학점으로 낮아지고, 사과대 교수들의 책임강의시간도 주당 9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와 관련해 사과대 박태호 교학과장은 "이번 졸업학점 완화는 교양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정보대학원 특강 '정보보호 산업 정책'

국제정보대학원(원장=송석구·철학)은 오는 15일 오후 6시 국제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정보보호 산업의 정책 및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정보보호학과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국제정보보호원 조휘갑 원장이 강단에 서며 국제정보대학원생 뿐 아니라 일반 학부생도 참여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제정보대학원의 한 관계자는 "정보보호 산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전문인에게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3회 동원학술상 시상 인문계 최우수상 박영길 외

제3회 동원학술상 시상식이 지난 8일 총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수상자는 △인문계열 최우수상=박영길(인도철학 박사과정) △사회계열 최우수상=이영재(정치학 박사과정), 우수상=백진현(경영학 박사과정) △자연계열 최우수상=이준우(화학 박사과정), 우수상=박영기(임학 박사과정) △공학계열 최우수상=이준(전자공학 박사과정), 우수상=김버들(건축공학 박사과정) 등이다.

## 다항관 서점 할인행사 전공서적 제외한 전 도서

다항관 서점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전공서적을 제외한 전 도서를 정가의 10%에서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30% 할인이 적용되는 도서는 △그로출판사 △대원사 △동양 문고 등에서 출판된 서적이며, 수험서 교재는 20%, 전공수험서는 10% 할인된다. 또한 어학관련도서는 최고 30%에서 1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다.

# 학내 비정규직 근무환경 '열악'

## 저임금에 고된 노동 ... 학교측 배려 필요

"경비 아저씨, 청소 아주머니, 식당 아주머니..."

매일 학내에서 마주치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본교는 몇 해 전부터 청소, 경비, 주차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크게 늘었다. 학교직원이 퇴임하면 용역업체 직원이 빈자리를 채우기 때문이다.

현재 경비원의 경우 학교직원이 19명, 용역업체 직원이 51명이고, 청소직원은 총책임자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고용된 비정규직원들은 용역의 특성상 '작은 수'가 '많은 일'을 하기 마련이다. 학생회관의 경우 2명의 직원이 건물 전체를 청소한다. 청소직원 이옥순(여, 61)씨는 "학생회관은 학생들의 출

입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청소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말한다. 아침 6시 출근해 점심시간을 제외 한 8시간을 청소에 매달리지만, 5층 건물을 2명이 담당하기엔 버겁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 밖 청소를 담당하는 남자 직원들의 경우 대운동장 쓰레기장 뒤켠에 마련된 컨테이너 박스 한 칸을 13명이 휴게실로 사용하고, 세면장과 탈의공간은 쓰레기더미 옆에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청소직원 김모(남, 65)씨가 스스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일해 한 달에 받는 급여는 55만원. 최저임금 47만원은 넘지만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나서서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 60세가 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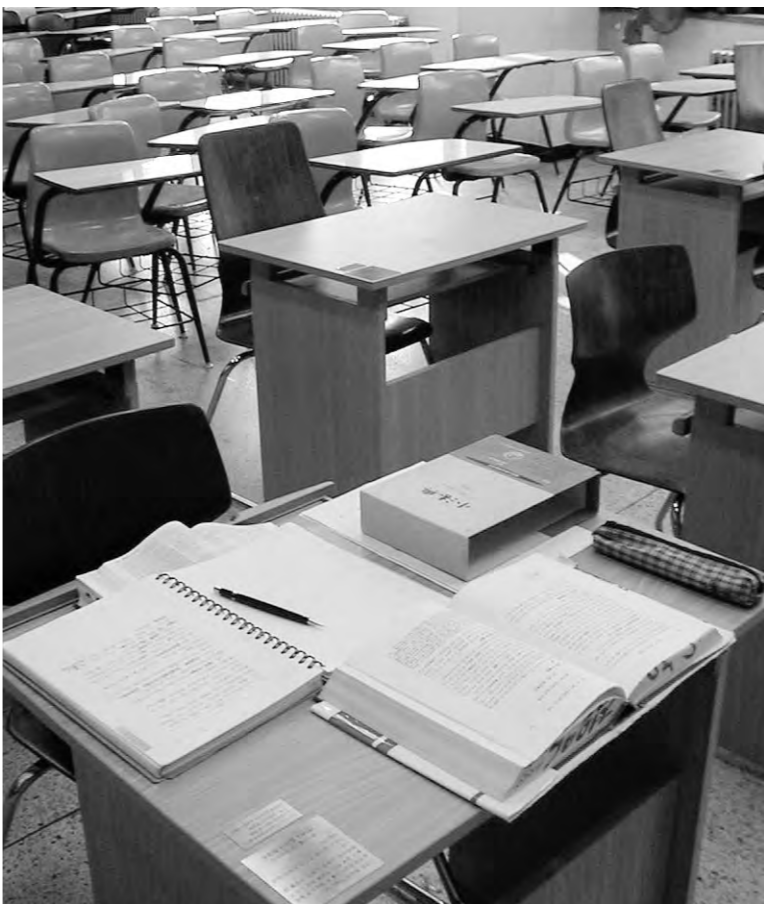
노령인데다, 회사의 눈 밖에 나면 바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비원 최육천(남, 58)씨는 "얼마 전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타업체 직원보다 임금이 낮은 것에 대해 항의했지만, 동료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뭉치지 못해 회사측에 이의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학교가 직접 나서 학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교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뿐,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은 업체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직원들의 휴게공간 개선 등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점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원들의 작업환경에 대한 학교측의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우리 손으로 ... 법과대 학생회(회장=손민환·법4)는 좁은 책상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주 전공 강의실에 새 책상 12개를 마련했다. 법대 학생들은 전공서적 외에도 법선 등 수업준비물이 많은 편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 34대 총대의원회 · 14대 졸준위 건설

## 단독출마한 윤재욱 · 박종희 80%이상 지지로 당선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결과 제34대 총대의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윤재욱(역교4)군과 제14대 졸업준비위원회에 단독입후보한 박종희(정보통신3)군이 당선됐다.

총대의원회는 총 유권자 233명 중 134명이 투표해 57%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 중 119명이 찬성해 88%의 지지율로 당선이 확정됐다.

## 2학년 교직과정 이수 신청 오는 19일부터 5일간

교직과정 이수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교직과정이 승인돼 있는 학과나 전공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와 함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 모의토익시험 접수 오늘부터 선착순 300명

모의토익시험 접수가 오늘(12일)부터 16일까지 해화관 1층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오는 17일 열리는 이번 모의시험은 선착순 300명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료는 4천원이다.

또한 졸업준비위원회는 총 유권자 59명 중 36명인 61%가 투표했으며, 21명인 86%가 찬성했다. 졸업준비위원회 투표결과 3표의 오차가 발생해 오차한계 5%를 넘었으나, 올해 선거전 시행세칙이 오차한계 10%로 변경돼 선거는 무산되지 않았다.

한편, 오는 22일로 예정된 18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선거는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다.

이번 선거가 연기됨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권영은·국문3, 이하 동연)는 내년 3월중으로 예정된 보궐선거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동연 비대위는 내년 3월에 임시전통대회를 열어 선거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제4차 생협 대의원총회 열려

## 과반수 이상 참여해 상정된 안건 모두 승인

지난 1일 열린 제4차 생활협동조합 대의원총회에서 재직인원 64명 중 과반수 이상인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된 안건이 모두 승인되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200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안건으로 다루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는 99년도까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총액과 2000년 이익잉여금 처리가 포함되었으며 △복지단 건립기금 2억 △법정적립금 1천796만6천원 △삼기이월 잉여금 2천만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미시령 사고 부상자 위로금 3천만원이 포함됐다.

또한 각각 이익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이후 조성되며, 차기이익잉여금은 생협 운영자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한 관계자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안건은 2월 중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200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은 연초에 사전승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회전무대

## 학점을 잡아라

O...교양과목을 많이 신청한 고학년들이 갑작스런 소식에 울상이라는데.

알아보니 이번 학기부터 교양과목에 한해 1, 2학년과 3, 4학년을 분리해 상대평가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예초에 학생들과 논의 없이 결정된 데다가 학교측이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현재 이 사실을 아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

이에 고학년 학생 왈, "뱉겨지는 성적평가의 새로운 비밀 ... A들은 갔다."

## 불성객

O...문화관 2층 컴퓨터실습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도중에 끊기기 일쑤라는데.

컴퓨터실습실의 수업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습실 밖의 학생들이 자주만 출입문을 여닫기 때문이라고.

"수업중"임을 알리는 간단한 메모만 붙인다면 수업분위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지.

이에 컴퓨터실습실 문을 여는 한 학생 왈, "확률은 50%, 분위기 대역전!"

## 분쇄기는 괴로워

O...학내 현금지급기 근처에 마련된 명세서 분쇄기가 몸 성할 새가 없다는데.

이유인즉 많은 사람들이 두꺼운 종이나 여러 겹의 종이를 명세서 전용 분쇄기에 함부로 넣어, 기계가 하루 한번 꼴로 고장나는 형편이라고.

몇몇 사람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학내의 많은 명세서 분쇄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문제는 투입과다, 빨리고쳐 프로젝트 월."

## 교수도 대출(?)

O...요즘 신방과의 한 전공수업에서 불만스런 표정을 짓는 학생들이 자주 눈에 띈다네.

알아본즉 수업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수님은 나타나지 않은 채 조교가 수업에 대신 들어오는 일이 잦기 때문이라고.

수업 시적이 늦는다는 조교의 말에 학생들은 교수님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수업시간 늦추기, 내공으로 버티기, 교수님 놀자."

# 200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 공고

## 1. 계절학기 업무절차 변경

가. 변경(적용시기) : 2001학년도 겨울 계절학기부터

나. 업무절차 주요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수강신청 및 정정	서식 신청 및 접수	드림스(교내PC이용) 및 Dial-up Modem 이용	수강신청 편의제공
수업료 납부	학사지원실	책임은행 전국지점	수납처 변경

## 2. 개설대상 교과목

2001학년도 1, 2학기 개설(예정) 교과목 및 계절학기 교과목(실험실습, 사비비 강좌 제외)

## 3. 수업일정

가. 2001. 12.17(월) ~ 2002. 1. 7(월), 월~토요일 16일간

나. 공휴일 제외

## 4. 강좌개설 기준인원

가. 전공 및 교직과목 : 7명 이상 나. 교양과목 : 10명 이상

## 5. 수강자격 및 신청절차

가. 수강자격 : 200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나. 신청방법 : 6학년 이내

## 6. 성적처리

가.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되며, 장학상 선발 및 학사징계 등 정규 학기 학점취득과는 구별됨

나.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성적은 전공, 복수(연계)전공 및 전과 결정시 반영됨.

다.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F학점(과락)은 성적증명서에 등재됨.

## 7. 수강신청

가. 기간 : 2001. 11. 13(화) ~ 11. 15(목), 3일간

나. 수강신청 시간 및 장소

(1) 서울캠퍼스

(가) 시간 : 11.13(화) 오전 09:00부터 11.15(목) 24:00까지

(나) 장소 : 교내 컴퓨터실습실(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뒷면 실습실현황표 참조)

(2) 경주캠퍼스 : 경주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실에서 신청서 접수

다. 수강신청 방법 (할차 변경) : 2001학년도 2학기부터는 학사지원실에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수강신청 기간에 교내PC이나 외부에서 Dial-up Modem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2001학년도 2학기 종합강의시간표 책자 8쪽 참조

## 8. 개설대상 교과목 및 수업시간 확정일지

2001. 11. 23(금) 예정

## 9. 수강신청 정정

가. 기간 : 2001. 11. 27(화) ~ 11. 28(수), 2일간

나. 제한 : 최초 수강신청후 폐강, 시간중복의 사유 발생시에 한하여 정정 가능

## 10. 수업료 납부

가. 기간 : 2001. 12. 3(월) ~ 12. 5(수), 3일간

나. 방법 :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업료 납부고지서 발급후 책임은행(동국대 출장소)에 납부

다. 유의사항 : 수업료 미납으로 수강인원이 미달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2002-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

2002학년도 1학기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바랍니다.

## 1. 장학명칭(장학금액) : 우수장학(등록금 30%)

가. 단과대학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 2.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자

가. 2001-2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3.0미만자는 추후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 3. 신청기간

2001. 11. 18(금) ~ 30(금)

## 4. 신청장소

해당 학업지도교수

## 5. 신청방법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 6. 신청서 평가기준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6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형편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1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대학 교과과제 문의 바람

## 7.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나.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다.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대학 교과과제에 제출함.

2) 동국함사랑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 처리됨.

3) 사회봉사경력에 졸업시 까지 계속 인정됨.

다. 지방세(재산세)세무발(미)과세증명서.

라. 기타 가정형편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접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선거법 위한 판결과 개정방향

올바른 선거제 위해 정치문제점 파악 절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선거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지역구 국회의 원 선거의 인구 상하한 편차 3.88대 1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며 2003년 말까지 3대 1이하로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또 한번의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

첫번째는 현행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비례대표제 부분에 정당투표를 허용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는 1인2표제를 도입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의원정수의 반 정도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다른 반 정도는 지금과 같은 1선거구 1인 1표제로 선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구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3가지 시나리오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시나리오는 기존의 전국구의원 선출 방식처럼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을 각 당 지역구에서의 총표율에 비례해 배분하지 않고 정당투표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군소정당의 의석배출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유권자들은 사표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거대정당 중심의 투표를 하고 있는데, 지역구의 득표율을 바탕으로 비례대표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의석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비례대표제 부분에 대한 정당투표를 허용하면 유권자들이 자신의 전략적 선호가 아닌 진정한 선호를 바탕으로 투표해 군소정당의 의석배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는 지역구 선거에 1선거구 1인 1표제를 유지하지만 그 수를 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배분되는 의석을 의원정수의 반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1선거구 1인 1표제의 사표를 많이 발생시키는 현상을 없애고 군소정당의 의석배출 가능성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이는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새로운

정당의 출범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에 익숙한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한다. 또한 지역구 수가 현재의 반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한 지역구의 크기는 현재보다 광역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표의 등가성 원칙의 준수가 현재보다는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당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보다는 명부에서 몇 순위를 받는지가 당락을 좌우하는 데 더 중요한 변수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상위순위를 받기 위해 당지도부에 대한 충성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대선거구 도입의 장단점

셋째 시나리오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지역감정을 바탕으로 한 특정 정당의 특정지역 독식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의 도입은 유권자들이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후보자들이 지역주민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 지역 전체에 걸쳐 조직



김민준 경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화되어 있는 단체 중심의 선거 운동과 의정활동을 펼쳐 이익 집단의 힘을 더 크게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선거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 보스 1인 중심의 정치라고 한다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 정책간의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혁신정당의 출현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당명부식의 확대 혹은 중대선거구의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향후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종합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나 가야 할 것이다.

사설

‘소중한 한 표’ 반드시 행사해야

2002년 학생회 선거가 점점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자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은 학생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한 노력에 여념이 없었다. 동약은 간만에 치러지는 경선으로 어느 때보다 분주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특히, 두 번에 걸친 중앙기구의 합동유세와 100분 토론이 몇몇 소수학생들만의 참석만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러한 냉대와 무관심은 곧바로 선거결과에 반영될 것이라 예상돼 더욱 그러하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에서 지난 10년 간 전국대학의 학생회 선거 투표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년대 초반에는 완만하게 줄어들던 투표율이 97년 말부터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최근 몇 년간 각 대학 학생회 선거에는 투표율 50%를 넘기는 것이 최대의 난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최종 투표마감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운동원들의 ‘50%와의 전쟁’은 극에 달한다. 이러한 선거풍경은 본교 또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학생회 선거는 “후보자와 유권자인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갈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는 자치활동”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를 실천해 가야 한다.

학생들은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을 서로 비교해 보고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와 이익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주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 끝에 선 학생회를 다시 세우고 동약의 밝은 ‘내일의 가능성’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임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학생도 신입생 유치에 함께 힘쓰자

본교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입시 홍보 프로그램 활동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신입생 모집에 들어간다. 올해 입시 홍보는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경주캠퍼스는 올해 입시 홍보 전략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 것은 물론 주요 정책에 많은 변화를 꾀하였다.

매년 치러오던 교수들의 고교방문특강과 대구지역을 집중홍보 하기 위한 교직원들의 고교방문 입시설명회도 지난해보다 홍보 구역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 7개교 7천 500명 고교생들을 특별홍보 관리대상 수험생으로 선정해 각종 입시자료를 무료로 배송해 주고 있다.

또한 주요 정책 사항도 복지타운 건립 계획, 유아교육학과 신설, 각종 대회 개최 등으로 신입생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교직원들의 활동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재학생들의 움직임은 미비하다. 현재 일부 지방대에서는 신입생 부족으로 폐교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교도 신입생 부족현상을 피하기 어렵다. 동국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에 의해 계속된다. 그 역사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올해의 경우 모집군이 3개로 줄어 신입생 유치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입생 유치는 누구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다. 재학생들도 모교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신입생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신입생 유치라고 해서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번 주부터 많은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위해 본교를 방문할 것이다. 여기서 재학생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신입생 유치 전략은 수험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다.

모성보호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대

여성권리 허점 메우려는 노력 필요

관계당국 대책 미흡 ... 적극적 지원 요구돼

직장을 다니는 2, 30대 여성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큰 짐 중 하나가 출산 및 육아에 관한 일일 것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취지 아래 지난 1일부터 모성보호 관련 3개 개정법률(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모성보호법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추가된 30일 휴가에 대한 급여와 육아휴직급여(월 20만원)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사립대 교직원 및 부속병원 직원들은 새롭게 바뀐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은 휴가급여 추가분의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기 때문이다. 사립대 교직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학연금을 받기 때문에 모성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약 7만명에 달하는 해당 직종 노동자들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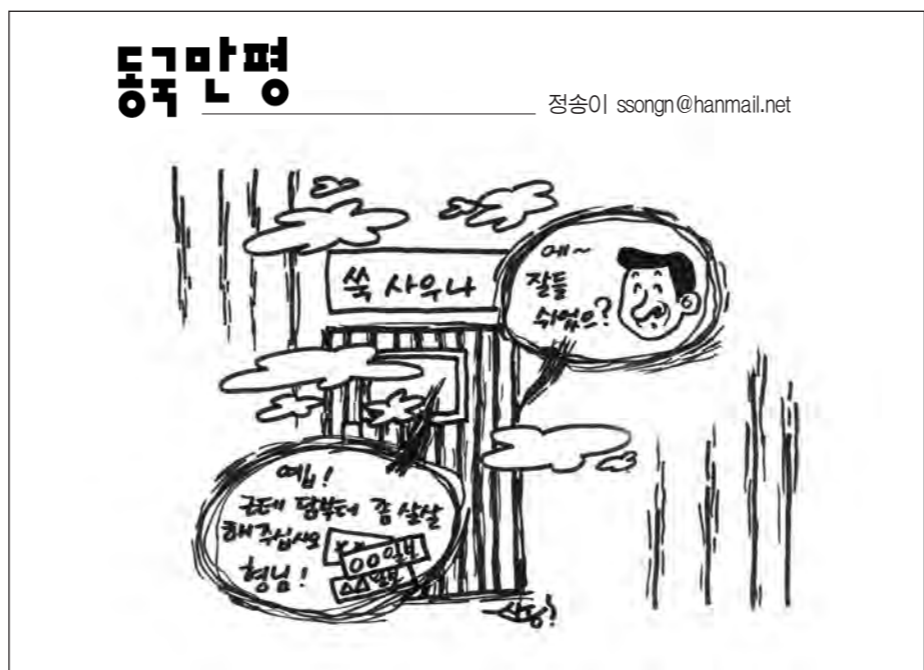
이에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사립대 직원들은 모성보호법 시행으로 신설되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를 받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노민기 고용심의관은 “정책입안 때부터 교육부에 사학연금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립대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립대 직원들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또한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휴가급여 지급이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각 학교법인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본교에도 이달말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여직원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다. 이와 관련해 본교 직원노조 김병호 사무국장은 “이달 내로 학교 측이 비용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원없이 학교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경우 사립학교 직원들은 여전히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 의료노조 김근래 여성부국장은 “모성보호법은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사회가 함께 부담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사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되면 사용자

이를 회피할 우려도 있을 뿐 아니라 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학노조는 사학연금 수혜 대상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입법청원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 없이는 모든 일하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막기 힘들어 보인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부주장 백승철,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은선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54)770-2658, 팩스 (054)770-2657

# 벤처, 21C 경제체제의 주역

## ‘과학동국’ 기치아래 창의성 펼치는 장 마련

창업지원단은 오늘(12일)부터 일주일간을 ‘동국 벤처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벤처관련 특강을 개최하고 벤처 창업경연대회를 진행해 시상하게 된다. 두 돌을 맞은 동국벤처주간에 즈음하여 창업지원단의 역할과 벤처주간 의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수년간 국가적으로 벤처열풍이 휘몰아쳤으며 벤처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대체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벤처열풍은 진정이 되다 못해 요즈음은 언제 침체상태에 접어들었는지 알 수 없는 날이다.



가능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국내 경제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일상에 의하면 정치권력과 결탁한 불건전한 자본이 형성한 거품이 빠지면서 ‘물자마 투자’가 자취를 감추었으며, 건전한 엔젤자금마저도 시장에 투입되기를 꺼려하면서 아직도 벤처업계는 한파를 맞이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벤처란 혁신기술과 건전한 자본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의지에 충만한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이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요즈음의 한국 영 화계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전의 총 무로 는 안전을 최우선 조건으로 여기고 비싼 소액 또는 몇몇 증권 감독을 받 복적으로 기용 하며 안전보다는 개혁이 없는 실패를 맞보았다면, 지금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감독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자본이 참여해 탄생한 국산영화들

이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를 압도하고 있다. 이는 영화계에서 젊은이들이 벤처정신을 함양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영화의 경우처럼 아마도 현재는 벤처업계가 1세대 벤처들의 거품이 빠지는 동안 조용히 발전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진정한 벤처기업과 건전한 투자자들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중동의 시기에도 동국의 젊은이는 끊임 없이 벤처정신을 함양하기를 기대받고 있다. 이 때 본교의 창업지원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외적으로는 본교 벤처센터가 인문사회중심의 정적인 대학이미지에 동적 활력을 부가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대부분의 대학 벤처센터가 이공중심의 대학에 하나씩 인가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본교는 서울에 2개, 경주에 1개 등 총 3개의 벤처센터가 정부로부터 인가와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과학동국’의 기치아래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동국인에게 다양한 진로를 생각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내에 벤처센터가 존재해 어느새 우리에게 벤처란 말을 친숙해진 용어로 만들고 있으며 재학생들에게 한번쯤은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게 하는 모티브를 제공해준다.

동국벤처주간은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우수한 벤처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으로써 향후 성공한 벤처인이 되도록 초석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실제로 제1회 동국벤처주간에 수상받은 한 젊은이는 그간 SOHO실에 입주하여 창업을 준비해 왔고, 지금은 제품을 생산할 단계로 창업을 구체화하여 조만간 정식 입주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만약 기술에 바탕을 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라면 벤처창업경연대회에 참가해 이를 구체화해보고 기업화할 방안이 부족하다면 한번쯤 창업지원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도록 권하고 싶다.

이종욱  
경연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 그늘진 벤처에 대학이 나선다

## 대학과 벤처가 결합한 다양한 사업전개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한 동국관 M동 2층에는 항상 벤처의 열기로 뜨겁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지난해 보육실 52개를 마련한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34개 업체가 입주한 상태다. 올해로 2회째 동국벤처주간을 진행하며 벤처업체에 자리를 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벤처를 대학 특성과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 역시 벤처육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본교보다 큰 규모의 자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호서대는 타대학보다 한발 앞서 벤처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운대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보육센터, 인터넷창업보육센터 등 모두 3개의 창업보육센터를 갖추고 있는 호서대는 타대학이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벤처를 육성시키기 이전에 신기술창업보육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해외에 창업보육센터를 갖춘 호서대 국내 벤처에만 머물러 있는 타대학에 비해 월등히 앞서면서 명실상부한 벤처전문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강대는 동문과 교수들의 꾸준한 지원으로 ‘벤처파크’를 설립했다. 특히 기업 대표로 있는 동문들이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서강벤처파크 설립은 대학의 교육 및 인프라, 벤처기업의 산업기술 노하우와 참여기업의 투자재원들이 어우러져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세대는 연세벤처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벤처관련 분야의 동문들을 연계해 우수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많은 학생과 교수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의 벤처포럼의 경우 A급 선정자에게 1억 원이 지급되는 등 행사의 규모도 크다.

또한 연세대는 벤처일반선택과목에 벤처학 연계강좌를 개설해 실무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벤처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KAIST는 지난 5월 대학 최대규모의 벤처쇼를 개최했다. 지난해까지 교내행사로 개최했던 것을 올해 행사규모를 키워 100여개 동문벤처기업과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와 상품을 전시했다. 이 행사는 기존의 행사가 벤처경연대회나 로드쇼에 그쳤던 것에서 탈피해 고교생을 위한 입시설명회와 동아리체험, 로봇축구대회, KAIST 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최근 벤처산업은 거품이 빠지면서 사양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눈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벤처산업 뿐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벤처특유의 혁신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벤처의 가능성을 보고 여러대학들은 앞다투어 벤처육성에 나서고 있다. 대학에서 길러낸 인재와 벤처의 유기적 결합은 불황인 벤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 ‘벤처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 “0.5% 성공 확률에 도전하라”



신지소프트 최홍관 사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강연하고 있다.

벤처 거품이 빠지면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지만 벤처 창업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도전’의 대상이다.

지난 6일 원흥관에서 ‘벤처 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신지소프트 최홍관(전산 92졸) 사장의 강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험담을 통해 벤처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벤처 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말했다.

‘All or Nothing’ 그가 말하는 벤처 기업의 특성이다. 벤처기업은 완전히 성공하거나 실패한다는 이 뜻처럼 벤처 창업은 대박의 환상만을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위험성이 큰 분야다.

자본·생존 전략 등을 비교해 봤을 때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상대하기에 벅찬 존재이다. 그러나 벤처가 가진 특성, 즉 고도의 전문 지식을 잘 활용한다면 벤처 기업의 성공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과 끊임없는 노력’이다.

핸드폰의 경우를 살펴 볼 때 누구나 제공하는 음성통신은 벤처인이 연구할 가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차별화 된 데이터 서비스, 즉 벨소리, 게임, 주식 등과 같은 새롭고 창조적인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벤처가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뿐 아니라 거대한 자본, 기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 개인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IT산업 분야에서 벤처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도전 정신을 가진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독창적인 기술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기 때문이다.

그는 벤처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벤처는 0.5%의 성공 확률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만큼 어려운 벤처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조건 시작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시장 조사와 같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할 때만이 벤처 기업의 성공은 허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조승기 기자  
chof55@dongguk.edu

흔히 사람들은 벤처 산업을 정보통신 분야에 한정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벤처의 전부가 아니다. 벤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미개척 분야를 창의적으로 개척하는 것인 만큼 다양한 방면으로의 색다른 도전이 위기에 빠진 벤처업체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가까운 예로 본교 경주캠퍼스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자리 잡은 기업들을 들 수 있다. 관광 관련 벤처기업인 ‘신라 사람들’은 주변에 문화재가 산재한 경주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소수의 고객들에게도 그들에게 맞는 비용과 시간으로 여행 계획을 짜주는 특화된 마케팅이 주 업무다. 이와 동시에 여행을 하면서 도자기 만들기, 탁본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평범을 거부한 이색 벤처기업

종교도 벤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원호 문화산업연구소는 불교에서 사업의 실마리를 찾았다. 불상이나 유적 모형물 제작을 통해 생활 속에서 불교적 이미지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독특한 사찰음식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양승필 대표는 “이런 분야는 시장성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팬용 코리아는 유적을 일상으로 끌어들이 생활 용품을 문화재 모양으로 장식해 상품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탠드를 경주의 유서깊은 문화재인 첨성대 모양으로 만드는 식이다. 이러한 활동 때문에 팬용 코리아는 역사문화를 활용해 상품화하는 문화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창립된 벤처창업보육센터의 건립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평가받는다.

벤처의 생명은 창의성이다. 특히 문화산업은 아직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틈새시장이 더욱 큰 분야다. ‘벤처산업의 침체기’라 불리는 요즘에도 벤처업계의 앞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조심스레 흘러나오는 것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는 색다른 벤처 기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함민희 기자  
lilith@mail.dongguk.ac.kr

## 제2회 동국벤처주간 (11. 12 ~ 11. 16)

벤처기업의 올바른 홍보와 벤처 창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동국인에게도 벤처 창업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제2회 동국벤처주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 본교 재학 중인 대학원 (석/박사) 및 학부생 대상
- 모집 및 심사**
  - ▶ 모집기간 :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 ▶ 심사 : 1차 서류심사 후, 우수작에 한해 11월 16일 발표회(오후2시 BSC실)
  - ▶ 발표 및 시상 : 11월 19일(예정)
- 시상내용**
  - ▶ 대 상(1팀) : 100만원 - 창업지원금, 창업지원단 Soho 입주기회 부여
  - ▶ 우수상(1팀) : 70만원 - 창업지원금
  - ▶ 가 작(2팀) : 50만원 - 창업지원금
- 참가요령**
  - 본교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작성
  -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 첨부
  - 2차 설명회 발표에 대비한 발표자료 준비
- 제출서류** : 벤처 창업 사업계획서(소정양식)2부과 3.5" 디스켓
- 제 출 처** : 창업지원단 행정지원팀(동국관 M동 2층 201호)

- 11월 13일(화) 오후 2시 문화관 세미나 실  
**창업과 창업마인드** : 이 경 회(한국창업진흥연구소 소장)
- 11월 14일(수) 오후 4시 문화관 세미나 실  
**창업환경분석** : 이 영 직(브랜디아 컨설팅 대표)
- 11월 15일(목) 오후 2시 문화관 세미나 실  
**21세기 여성창업의 비전** : 김 은 수(새턴 커뮤니케이션 대표)

창업지원단 · 동대신문사 · 여학생실

## 전문성 갖춘 기술력과 사업능력이 관건

### 참신한 아이디어와 자신감있는 태도로 임해야

‘노래방 서치리모콘과 거울기능 LCD’, ‘문학사이트’, ‘형상변형종이완구’ 이상은 지난해 제1회 벤처창업경연대회에서 독특한 발상과 시도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이다. 지난해 처음 선보인 벤처창업경연대회는 학생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고, 벤처 창업의 지를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았다.

올해 역시 그런 긍정적인 면을 이끌어내고 더욱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2회 창업경연대회가 마련됐다.

본교 창업지원단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오는 14일까지 창업아이디어가 제시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차 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우수작의 사업설명회, 즉 공개발표회를 거치며 진행된다.

공개발표회는 준비한 사업아이템의 내용을 설명해 타당성과 실용성을 평가받는 자리로 오는 16일 BSC실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발표회를 통해 아이템의 사업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면 수상작으로 결정해 지

원을 받게 된다.

수상작을 선정하는 심사기준은 사업성과 기술성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성 평가항목은 △사업 아이디어의 수준 △경영능력 및 신뢰도 △시장성 △판매전략으로 이루어지며 기술성 평가항목은 기술의 △상품성 △경쟁력 △발전력으로 나누어진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기술력이 부족했다는 지난해 작품들의 평가로 미루어 볼 때 올해는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

성과 기술성을 두루 갖춘 작품을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노래방 서치리모콘과 거울기능 LCD’로 대상을 수상한 J.TECH의 정재준(기계공 01졸) 씨 역시 그 점에 주목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기술력과 현실성 있는 사업능력을 갖추어야 심사위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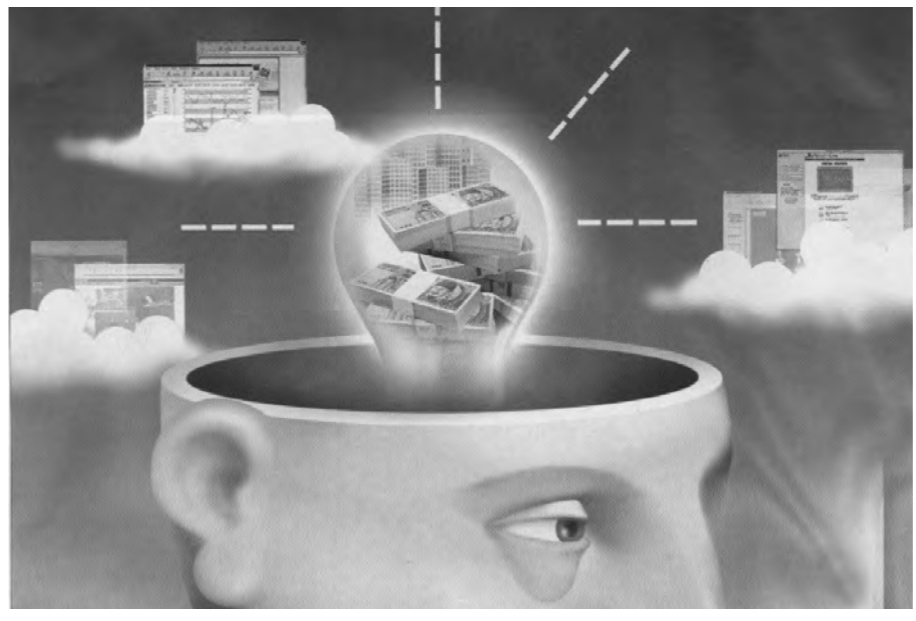
또한 “단지 경연대회만을 위해 창업아이디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으로 이어나가려는 마음이 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광범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핵심만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 발표회 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 벤처열풍이 시들해지는 바람에 지난해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던 벤처창업경연대회가 그리 성황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한다.

‘학생과 함께 하는 벤처’로 거듭나겠다는 창업지원단의 의지가 올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 우주 탐사의 역사, 미지의 행성을 찾아서

## 열번째 행성 존재가설 등장 ... 다른 천체일 가능성 높아

망원경의 도움 없이 볼 수 있는 태양계 행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그리고 토성뿐이다. 나머지 행성들의 발견은 망원경의 발달에 힘입어 1781년에 천왕성, 1847년에 해왕성, 그리고 1930년에 명왕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새 행성 하나를 찾는데 60년 이상씩 걸린 것이다.

해왕성은 천왕성의 궤도가 그 이전까지 알려져 있는 행성의 영향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실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유명하다. 이 탐사는 1841년에 시작되어 불과 5년 만에 예측된 위치에서 해왕성을 찾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해왕성 궤도 역시 새로운 행성이 있어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알려짐으로써 이를 찾기 위한 탐사가 1846년부터 시작되었다.

해왕성 밖의 행성을 찾는 프로젝트는 여러 천문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 미국에 돌아가 'Land of Morning Calm'이란 책을 써서 한국을 세계에 알린 천문학자 P. Lowell의 것이었다. 그는 1908년에 시작하여 1916년 사망할 때까지 자신이 설립한 Lowell 천문대에서 'Planet X'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했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실제로 명왕성을 발견한 것은 훨씬 시간이 지난 1930년 Tombaugh라는 아마추어 천문학자였다.

명왕성이 발견된 이후에도 새로운 행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일부 천문학자들에 의해 계속되었다. 실제로 태양계에는 수많은 소행성이 있고 지름 100 km 미만의 작은 부스러기들이 모여 있는 카이퍼 띠가 명왕성 궤도 밖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행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은 존재들이다.

과거 해왕성이나 명왕성을 찾을 때의 상황과 달리 이제는 제 10의 행성은 필요하지도 않고 실제 관측되기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새로운 행성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들이 새로운 행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장주기 행성의 궤도에 어떤 규칙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장주기 행성은 태양-지구 거리의 약 5배 배 되는 반지름으로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오프의 구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된다.

오프의 구름 속에 있던 행성이 태양을 향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은 멀리 지나가는 다른 별의 영향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의 별자들은 장주기 행성은 오프 구름 내에 있는 또 다른 별(목성 정도 질량)이므로 행성이라 부른다)의 영향으로 태양을 향한 운동을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행성이 있으리라 추정되는 위치에 대해 찍은 사진을 조사해 새로운 행성을 찾는 노력이 얼마 전에 미국 잡지 Discover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대부분 정문가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새로운 행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증거는 아주 빈약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찾고자 하는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9개의 행성과는 그 기원이나 성질도 전혀 다른 것이다.

새롭고 신기한 천체는 천문학의 역사를 통해 계속 발견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천체의 발견은 대부분 체계적인 탐사를 통해서라기보다 우연히 이

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행성 탐사 프로젝트 역시 행성이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천체를 발견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이형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관료체제 개혁의 경제적 근거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이 마약제조 혐의로 사형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외교부의 무책임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중등고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문제 등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쌀 생산농민의 쌀 수매정책에 대한 항거 등 정부에 대한 일련의 비판은 관료체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관료체제는 왜 계속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누구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4대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포함한 바 있지만 타 부문에 비하여 그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담당분야에서 독점적이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 이외의 누구도 행정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해 독점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익은 물론 현금 형태는 아니지만 경쟁에 의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비효율적으로 공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의 후생은 그만큼 희생되게 된다.

관료체제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그 실행이 어려운 이유는 개혁의 주체가 개혁대상인 공무원이리는데 있다. 이는 개혁의 주요 내용이 되는 규제철폐와 민간부문에 경쟁하여 공급하는 것을 개혁대상인 공무원에 맡겼을 때 어떤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에 의한 개혁은 유인양립적(incentive compatible)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보상형태 역시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막연한 형태의 보편과 명예에 치중한 점이 크다. 이러한 비물질적 보상은 과거 정부 이외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정부에 기대하던 역할이 크던 시절에는 그런 대로 효과를 발휘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사부문의 역할이 정부 부문에 비하여 커지고 있으며 그 경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에 있어서 사부문에 비하여 낮은 보수를 주면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는 어려워졌다. 공무원에 대한 낮은 보수는 공직을 희소자원인 인재가 회피하는 자리로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도 업무 수행에 있어 독점적 위치가 결합될 때 좋은 정책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며 공무원들은 자연적인 욕구로 이를 누리고 향유하려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관료체제의 개혁은 훌륭한 인적자원의 충원과 독점적인 공급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무원의 보수체제를 직급과 연령에 상응하여 생활이 보장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된 보수체계 하에서 각 직책을 내부 승진자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입용제도를 정착해야 한다. 또한 정부 업무 중 현재 공기업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성이 있는 업무는 민간공급자와 경쟁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승기 기자  
chof55@dongguk.edu

### 우리시대 '젊은 지성인' 이진경 씨를 만나

## “사회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 통해 확고한 신념 가져야”



1960년대 후반 프랑스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혁을 이끌었던 주체는 학생들이 중심이 된 젊은 지성인들이었다. 이처럼 어느 시대든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타파하는 원동력은 지성인들의 사회 참여였다.

“수유 연구소+연구 공간 너머”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이진경(38) 씨는 80년대 공유재산제도 실현을 추구하는 ‘코뮤주의’를 주장하며 사회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의 ‘20에서 21’이라는 기획 연재물에 21세기 인문학과 사회과학분야 지적 흐름에 대한 내용을 14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했다. 이에 그를 만나 젊은 지성인의 부재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 최근 젊은 지성인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 젊은이들이 확고한 신념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진로, 취업과 같은 개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성인

의 부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지성인은 단순히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 전달과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사회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 ‘코뮤주의’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사회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정치·경제적으로 고통과 억압을 받는 구조였던 80년대는 많은 사람들이 군부독재, 정경유착 등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시대였다. 코뮤주의는 이런 사회문제의 대안으로써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모두가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이상이다. 이러한 사회흐름 속에서 모두가 공존하며 살고 싶다는 신념을 갖게 되면서 코뮤주의를 주장하게 됐다.

- 시대가 신념을 확립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 신념이란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살았던 80년대는 사회

불합리성에 대한 ‘개혁’이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시대였다.

이것은 억압과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사회 문제를 타파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지금은 ‘행복인 동시에 불행이다’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풍요로워졌지만 동시에 현실 문제에 대해 반추하고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젊은 지성인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사람들은 ‘세계의 중심은 나’라는 아집에 갇혀 살기 쉽다. 이것은 결국 사회에 눈을 돌리지 못한 채, 모든 문제를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게 하는 원인이다. 여유를 가지고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아집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할 때, 비로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세계 중심은 나’라는 아집에서 벗어나 사회참여적 자세 필요

### 현각스님 ‘참다운 종교란...’ 강연 오늘(12일) 오후6시 성균관대에서

TV 다큐멘터리 ‘만행’으로 널리 알려진 벽안의 선승 현각스님이 오늘(12일) 오후 6시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조병두홀에서 강연회를 연다.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와 ‘선의 나침반 1.2’ 등의 저자이며 현재 현정사 주지로 있는 현각스님은 이날 ‘참다운 종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 고수동정

▲이기동(사학)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한일문화포럼에 패널리스트로 참석.

▲이민웅(생물학)  
=한국식물병리학회 회장으로 지난해 25일 당선.

▲이종태(산업시스템공학)  
=내일(13일)부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해외워크샵 참가.

## 강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성유전자

### 여성유전자 우월성 과학적 입증 ... 남녀 평등 반석 마련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 이브를 만들었다고 전해오면서, 여자는 남자의 일부이며 예속의 존재로 자리해 왔다. 흔히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인간게놈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 내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흥미롭다.

시대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제도와 인습은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보아왔는데, 여기서 최근의 과학적 사실들을 들어 그 판을 신나게 뒤집어 보자.

### 인간 기본형은 여성

인간은 23쌍(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성염색체인 X와 Y염색체를 제외한 22쌍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끼리 짝을 이루 유전정보를 교환하지만, 성염색체는 짝이 다를 수 있고 유전정보도 거의 교환하지 않는다. 인간의 성 결정은 X염색체와 Y염색체가 하나씩 들어있는 부모의 난자와 정자로부터 X염색체와 Y염색체를 받으면 남성(XY)이 되고, X염색체와 X염색체를 받으면 여성(XX)이 된다.

즉, 남성과 여성은 단지 한 개의 염색체만 다른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바로 Y염색체상에 위치하고 있는 SRY(sex-determining region of Y)로서 이 유전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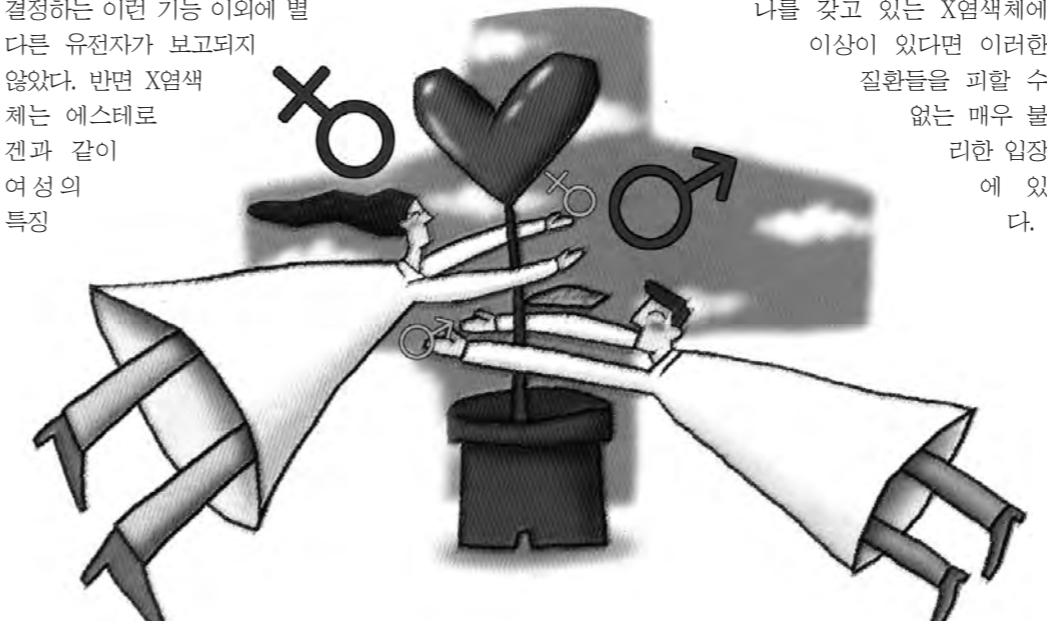
없으면 생식기관은 난소가 돼 여성이 된다. 정확히 말해 Y염색체를 갖고 있더라도, SRY 유전자가 없다면 여성이 되도록 기본틀이 짜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진화적으로 매우 설득력을 얻는다.

### 다기능 X염색체

또한 지금까지 Y염색체는 남성을 결정하는 이런 기능 이외에 별 다른 유전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반면 X염색체는 에스테로겐과 같이 여성의 특징

을 발현시키는 여성호르몬을 만드는 일 외에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많은 유전자들을 갖고 있다. X염색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에스테로겐 호르몬은 폐암이나, 간암, 대장암 등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공짜로 예방주사를 맞은 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색맹, 혈우병, 근이양증과 같은 X-연관된 유전질환인 경우, 여성은 X염색체 두 개 모두에 유전자 이상이

있어야 발병하나 남성은 유일하게 하나를 갖고 있는 X염색체에 이상이 있다면 이러한 질환들을 피할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다.



이밖에도 남성과 여성의 생식세포가 될 부분(germ line)에서 상대적인 돌연변이 빈도를 측정 한 결과, Y염색체가 X염색체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빈도의 돌연변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결국 유전자 측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불안정하고 취약하다는 말이다. 하물며 남성은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며 이를 자손에게 계속 물려주는 반면, 여성은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발된 돌연변이도 치유하려고 노력한다. 바꿔 말해 인간의 유전정보는 남성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지만, 여성은 이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남성은 여성덕분에 늘 돌연변이의 위험에서 구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

이상 유전자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들은 우리의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다. 원래 이브라는 명칭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Kali Ma의 Jaganmata)’로 인도에서는 ‘만물의 창조자(Jiva, leva)’라 한다. 즉, 오늘날 여성이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열등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이제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남녀의 우월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 인간은 강약으로 사는 것이 아닌 지적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평등 그 자체일 뿐이므로, 진화적으로도 인위적인 파괴를 제외하고는 평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향해 또 그렇게 움직여나갈 것이다.

홍성수  
인류유전 및 진화학전공 박사

### 바른 자세의 중요성



고복현  
의과대  
해부학 교실 교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처음 대할 때 느끼는 첫인상에는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나 옷가짐 등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그 사람의 자세가 반듯한지, 즉 허리가 곧으며 가슴을 활짝 펴고 좌우로 기울어짐 없는 반듯한 자세인지를 통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과 위풍을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상체가 구부정하거나 좌우대칭이 맞지 않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무언가 허점과 흐트러짐을 느끼고 호감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몸의 뼈대는 크게 두개골, 척추 및 골 흉곽으로 형성된 체간 골격과 사지골로 이루어진 체지골격으로 나뉜다. 특히 체간골격 중 척추는 건물구조로 말하면 기둥과 같이 신체를 지탱하고 좌우대칭을 이루어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강의, 자율학습 등으로 의자에 앉아 보내는 유년기·청년기 학생시절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는 골성장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 상체를 너무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앉는 자세를 습관적으로 장시간 반복해서 취한다면 특히 척추에 영향을 주어 청소년기 척추 후만증(Juvenile Kyphosis: 흉부 후만이 현저히 증가하여 어깨가 전방으로 처지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요부 전만이 증가하여 배가 앞으로 나오게 된다), 비구조적 척추 측만증(Non-Structural Scoliosis: 등이 좌우 어느 한쪽 옆으로 구부러지고 한쪽 어깨가 높거나 낮아져 좌우대칭을 이루지 못한다) 등의 질병을 일으키기 쉽고 성인이 되어서도 고착화되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장기적인 습관에 의한 체간 골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지라도 좋지 않은 자세를 몇 시간이고 반복적으로 취한다면 허리근육긴장의 불균형으로 요통이 생긴다든지, 목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두통유발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습효과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목·허리 디스크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학습효과를 높이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남에게 흐트러짐 없는 위풍을 느끼게 하여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 달하나 건강에

병을 일으키기 쉽고 성인이 되어서도 고착화되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장기적인 습관에 의한 체간 골격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지라도 좋지 않은 자세를 몇 시간이고 반복적으로 취한다면 허리근육긴장의 불균형으로 요통이 생긴다든지, 목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두통유발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습효과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목·허리 디스크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어느 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생활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학습효과를 높이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남에게 흐트러짐 없는 위풍을 느끼게 하여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 퀴어영화 정기상영회

### 퀴어들이 보여주는 당당한 삶 이야기



‘만약 당신의 친한 친구가 커밍아웃을 한다면? 혹은 당신의 형제나 자매가, 더 나아가 당신 자신이 동성애에게 가슴 두근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이성애’만이 절대적 사랑의 방식이라 믿어온 사람들에게는 영혼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동성애자들에게 이것은 이미 진지한 자기 이야기이다.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종로의 한 영화관에는 성적 다양성을 주장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퀴어아카이브에서 주최한 ‘퀴어영화 정기상영회’가 그것이다. 매달 세편의 퀴어영화 상영과 관객들의 토론 자리, 워크숍의 진행으로 구성되는 정기상영회는 올 한해동안 꾸준히 퀴어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 사이의 소통로 역할을 해왔다.

### 일반과 이반의 소통공간으로 정착

‘그들의 통과예 - 커밍아웃’, ‘에이즈와 함께 살다’ 등 다소 센세이셔널한 내용의 정기상영회 주제는 11월, ‘사랑의 정신병리 혹은 연애중독자, 퀴어’로 이어졌다. 사랑하는 사람의 성 때문에 동성애자로 규정된 퀴어들은 다른 조건없이 오직 사랑과 사랑 그 자체에만 빠져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연애중독자적인 면을 지닌다는 것이다. 소녀 레즈비언의 모습을 뜻뜻하게 그려낸 ‘짧은 날의 중얼거림’, 게이 청년들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집시 보이즈’ 그리고 발랄한 코미디풍 퀴어영화, ‘팬텀아 그냥 섹스라니까’. 이곳의 영화들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사실 말고도 그 자체의 완성도가 높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그래서 매달 진행되는 상영회를 일일이 챙기는 고정팬도 상당한 편이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마련된 워크숍 자리는 동성애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11월의 워크숍 손님으로 참석한 동성애 계간지 한채운 편집장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 단어로 성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보다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관객과 함께 성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가지 단어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성 정체성을 ‘이성애’에만 묶어두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은 성적 다양성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획일화의 폭력이 난무하는 우리사회에서 금기를 깨는 이들의 성적 다양성의 개척정신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물론 그 매개체는 퀴어 영화가 될 것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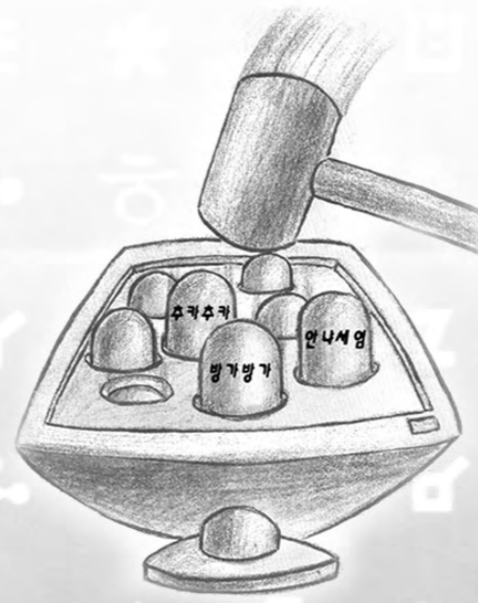
## 결코 반갑지 않은 ‘방가방가’

### 한글 축약·파괴에 자성 ... 네티즌 중심 ‘우리말 살리기 운동’으로

‘받아쓰기’란 시험이 있다. 선생님이 불러주는 낱말이나 문장을 공책에 꼭꼭 받아적지만 하면 되는 시험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이 받아쓰기 시험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파괴된 우리말에 익숙해져버린 대학생들이 과연 제대로 된 받아쓰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된 궁금증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한글파괴 현상’은 그동안의 우리말 형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안나세염’ ‘글루나’ ‘하이루’ ‘추카추카’ ‘방가방가’와 같이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용어들은 형식이나 규제의 제한 없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줄었다, 늘었다 해 본래의 한글 틀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지

55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한글파괴 현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말 줄여 쓰기’에 익숙해 있던 네티즌들이 자성의 목소리로 ‘우리말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인터넷 동창회 사이트 다모임(www.damoim.net)과 10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아이두넷(www.idoim.net)이 ‘온라인상의 언어파괴는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우리말 가꾸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의 인터넷통신 동호회들이 나서 ‘인터넷 우리말 살리기 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 또한 ‘가위’라는 아이디를 가진 웹디자이너는 ‘한글 디자인(nkko.c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초기화면부터 모든 컨텐츠를 한글로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한글 이외에도 우리 전통의 문

양과 색채, 이미지를 소개해 한국적인 정서가 물씬 풍기도록 만든 것이다. 지난 9일 단국대, 서울여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의 한글 타이포 관련 동아리의 전시회도 한글을 다시 보자는 취지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해화역 내 상설 전시장에서 열린 이 행사는 새로운 글꼴을 개발, 그것을 영상과 전시물로 표현해 시민들에게 한글의 생성원리와 의미,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조현영(단국대 시각디자인3)군은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단아함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질 때 더욱 빛을 발한다”며 “온라인상에서 편리성만을 따져 아름다운 우리말을 파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은 ‘한글이 목숨이다’는 휘호를 통해 한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말과 글은 한 민족의 기틀을 형성하는



정신적 뿌리요, 줄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에 오염되고 암호 같은 통신용어들로 파괴되는 현재 우리말의 문제는 비단 언어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모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한글처럼 ‘한글사랑 운동’이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자문소식

### 디딤돌 영화제

서울캠 영화 동아리 ‘디딤돌’이 가을맞이 정기 영화제를 개최한다. ‘숨은그림찾기’라는 모토를 내세워 잘 알려지지 않은 개성 있는 영화들을 선별해 상영한다. 오늘(12일)부터 14일까지, 학림관 소강당에서. 문의 011-9922-5357(김정수)

	12일(월)	13일(화)	14일(수)
12시	단편영화	마이크로스	툰
3시	피크닉	당신이	무류과
		색스에 대해	무류 사이
6시	소림축구	이멜리에	

### 그리고...그림 전시회



서울캠 순수미술 동아리 ‘그리고...그림’이 제34회 그림전을 연다. ‘궁극적인 자아찾기’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회는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기법으로 화폭에 담아 선보일 예정이다. 그동안 회원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17일까지. 90주년 기념문

화관 지하2층 갤러리동국에서. 문의 011-9895-5359(박원석)

### 호우회 전시회



경주캠 봉사 동아리 호우회가 ‘독립군의 활동상과 일제의 만행’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 이번 사진전은 경주 보훈지청 후원으로 독립군들의 모습과 일본이 저지른 처참한 현장을 그대로 담아낸 사진 50여 점이 소개된다.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실상을 재조명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12일)부터 14일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 문의 054)770-2759

### 마음소리 수화발표회



경주캠 수화 동아리 마음소리가 열 번째 수화 발표회를 가진다. 이번 발표회는 ‘좋은 사람’ ‘가족’ 등의 노래를 통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스님들이 부처님께 바치는 이색적인 무대도 마련될 예정이다. 세상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마음으로 전해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 17일 오후 4시. 원효관 소강당 1에서. 문의 054)770-2756

# 매체비평

## 라디오 편

###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라디오와 인터넷이 만나면 또다른 가능성이 열린다”



실험적 제작방식의 도입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라디오가 인터넷과 만난다면? '듣기만 하면' 라디오도 '쓰고 보고 듣는' 커뮤니

티형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 SBS 라디오가 지난 4월 2일 불프로 개편부터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SBS 파워FM(107.7MHz)을 통해 방송하고 있는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Ghost Station)'이 바로 그것이다. 1999년 11월 1일 인터넷으로 처음 방송되기 시작한 '고스트 스테이션을 쏘아 부르는 말'은 신해철 특유의 자유분방한 말투와 독설, 새로운 스타일의 최신 음악 소개가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어 라디오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그 제작방식이 신선하다.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중인 가수 신해철이 개인 스튜디오에서 만든 방송을 인터넷으로 한

국에 오디오파일로 전송하면 이를 방송국에서 FM 전파로 바꾸어 방송한다. 이러한 제작방식은 방송사가 프로그램 방송 시간을 편성하고 증거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액세스 프로그램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인터넷 사이트와 라디오에서 동시에 서비되는 만큼 진행자와 청취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새롭게. 진행자 신해철은 '밤의 데마왕'이라 칭하고, 고스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일없이 주위를 배회하는 '좀비'나 가족들에게 소외당한 '유령', 주위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환자', 낮에 깨어있기 힘든 '드라큘라', 여성전용 '미녀' 등의 캐릭터로 부른다. 그리고 '신해철의 유령방송국' 사이트를 통해 게시 판에 글을 쓰거나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

고 게임처럼 자신의 캐릭터를 키우기도 하면서 고스를 즐긴다. 다소 열기적인 설정에 반발은 기본이고 "오케바리" "꿀값 떨지마" "말간 사연" 등의 속어가 난무하는 대화가 아슬아슬하지만 "내가 누구인 가라는 고민도 공부 때문에 미뤄놓고 사는 짐승같은 생활"을 강요하는 기성세대와 주류문화를 비판하는 '마왕'은 10대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늦은 밤까지 공부에 시달려야 하는 고3 수험생과 20대 젊은이들이 주로 '유령도시'를 해매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스 사람들을 환자나 좀비에 빗대고,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지배할까봐 한다고 공공연히 내세우고, 거친 욕설이 '빠-' 처리없이 날것으로 방송되는 경우가 잦아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기성세대를 비판하는 10대들의 저항 커뮤니티가 꼭 욕설과 '불건전한' 내용이 어야 하는냐는 불만이다. 그러나 그것은 고스에서 대화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이해하자. 물론 '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니까. 그대신 고스가 인터넷 시대에 조용한 새로운 형태의 '해적방송'이라는 점에 주목하자. 방송국 중심의 제작 시스템을 부정하고 개인 또는 몇몇의 구성원이 모여 자발적으로 제작하는 개인 방송이 인터넷과 방송전파를 타고 사람들에게 흘러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으니 이런 방송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지지 않을까. 다음엔 무엇이 유행가 가래된다.   
조은숙 매체비평우리스로 기획부장

# 문화지구, 선정은 쉽지만 길은 멀다

지난달 10일 서울시는 역사문화 자원보호 등을 위해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최고 5천만원까지 저리용자지원,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제감면, 건축행위규제 외에도 문화업소가 비문화업소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시설을 시가 직접 입차해 문화업종을 영위하려는 사람에게 재입찰할 수 있는 근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곧 전통문화 및 공연시설이 몰려있는 인사동,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집중육성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성장과 개발위주의 도시관리에서 벗어나 도시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전환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근대문화유산들이 하나의 점으로부터 인접되어 주변지역과 전혀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따로따로' 현상의 개선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안들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첫째, 주민참여 없는 '관' 주도의 일사불란함이다. 인사동과 대학로의 '문화'는 단순히 문화시설의 집적 이외에도 이를 해석하고 덧붙이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반복작업과 활동을 통해 형성되어 온 산물이다. 따라서,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는 지역주민, 이용자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무용지물이고 예산낭비일 뿐이다.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브라질 '푸리자바시'는 중심상업도로를 보행자도로로 전환하는데 따른 주민반발로 계획이 무산될 뻔했던 것을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해결한 대표적 사례다. 지역 주민, 아이들과 함께 중심도로의 보도블럭에 그

림을 직접 그려넣는 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거리에 대한 애정을 키워냈고, 결국 보행자전용도로로 전환하고 활용하는 것에도 적극적인 참여하게 된 것이다. 주민을 단순한 관망자가 아닌 사업의 주체로 설정한 행정의 결실인 것이다. 둘째, 특성없는 획일적이고 상업적인 문화의 양상이다. 지난 99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준비했던 '서울시 견고한 거리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자동차에 밀려 제대로 숨길 공간조차 갖지 못했던 보행자들의 보행권(步行權)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환영받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였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거리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주민과의 공감대 없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보도블럭 교체, 거리 단장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거리 치장에 그쳐버렸기 때문이다. 인사동도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이후 전통산업의 위축, 유흥서비스업의 확장, 인사동 문화의 상업화 등의 가속화로 인해 많은 이들이 문화의 변질을 우려하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이다. 지난해 도시개혁센터는 대학로 문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종로구청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바쁜 시간을 쪼개어 나온 대화는 담당공무원이 과연 대학로의 문화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고 있는 가라는 의구심을 남겼다. 자치구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고민과 연구진행 없이 중앙부처의 자금지원에만 목매달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어떤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고 실행될지를 말할 수 있겠는가.

###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매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출발한 정책들이 진행과정상의 미숙함으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아픈 과거를 우리는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감증 환자로 만들어버렸다. 더 이상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재정지원을 넘어서 지역문화에 대한 좀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출발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주민과 전문가,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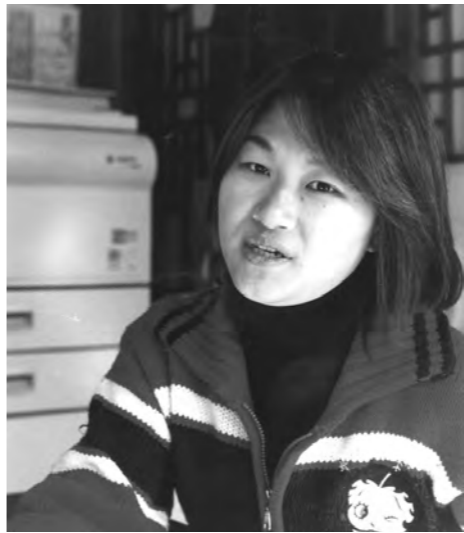
인터뷰 -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간사 김태현 씨를 만나

## '사람'과 '문화' 아우르는 도시 만들기

문화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점점 도시속에서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삭막한 도시를 생태·문화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문화개혁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 중심으로 일고 있다. 이에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간사 김태현 씨를 만나 현재 우리나라 도시들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 거리답사를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 '거리-건축-사람'이란 주제는 도시의 흐름 역할을 하는 거리와 사람들의 활동공간이 되는 건축물, 그리고 사람들간의 교류같은 도시의 구성요소가 별개가 아님을 뜻한다. 이들은 '사람'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하나로

통해야 한다. 때문에 사람과 문화를 뒤로제쳐 놓은 채 비체계적인 도시계획과 미관을 강조하는 정부의 개발위주 도시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 거리를 통해 본 우리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 사람보다 공간의 효율성, 상업적 이익 등 부수적인 면만을 고려해 추진한 도시계획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하로가 횡단보도보다 많은 것은 사람보다 자동차가 우선하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는 사람들간의 교류를 끊어놓는다는 점에서 정체된 도시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체계로, 일지로 주위에서 진행중인 '밀어내기식' 난개발과 재개발

역시 재산권행사, 도시미관이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시청, 대사관 등 공공기관과 주변지역의 경우 잘 꾸며놓은 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통제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구획이 얼마나 정책위주로 운영되고 시민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 먼저 사람들에게 자동차나 건물보다 도시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점을 일깨우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종로의 미대사관건물을 국립미술관으로 변경하는 운동을 추진해 도시속에 잠재된 문화적



요소를 살리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사람이 주체가 되는 도시에 그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바로 설 때 진정한 문화도시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하나 기자  
sellone@dongguk.edu

## 깝데기만 남은 거리 너 막 걸렸어!

'인사동'과 '대학로'는 본래 예술분야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 앉아 삶을 이야기하고 문화를 노래하는 문화예술인들의 터전이었다. 옛것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통문화의 거리'로, 배고픈 연극인들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말이다. 하지만 최근 이 두 곳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아직도 그 명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올시다'이다.

먼저 '연극의 메카'라 불리던 대학로는 언제부터인가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유흥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대학로에서 매춘하다가 토막살해 당한 여고생'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대학로의 이미지는 밝지만은 않다. 화려한 외양의 커피숍과 음식점이 큰길 주변을 차지하고 소극장이 구석으로 내몰리진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됐던 문예회관과 썬더사 앞의 환경조각물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각 소극장의 위치를 알리는 제대로 된 안내지도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작품성보다 말초적인 웃음을 선사하는 오락물이 급증하고 있음은 대학로가 더 이상 예전의 대학로는 아님을 의미한다. 돈이나 흥행에 상관없이 젊고 실험적인 작품을 무대에 올린 대학로가 상업적으로 왜곡된 문화예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인사동이 '제의 대학로'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 거대한 상업물결로 본질 잃어가는 문화거리

지난 99년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의 방문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인사동은 이 때부터 본격적인 상업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된다. 오랜 세월동안 인사동을 터전 대감처럼 지켜오던 골동품점이나 화랑이 재정을 이 유로 문을 닫았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다름아닌 민속주점과 오락실, 비디오방 등의 유흥업소였다. 이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인도, 베트남 요리 등의 타국 요리 전문점. 그리고 최첨단식 고층건물의 등장은 인사동을 국적불명의 거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에 지난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 '인사동 제모습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고 정부 또한 무려 36억원을 들여 인사동 거리 재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인사동 제모습 찾기 운동'이 남긴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표상이라 불리는 커피 전문체인점 '스타벅스'의 입점과 정부가 야심만만하게 내놓았던 '몰락'과 '돌벤치'의 무용지물화 뿐이었다. 대학로와 인사동은 분명 어느 지역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특색을 갖춘 거리였다. 그러나 계획성 없는 정책과 사람들의 과한 욕심은 인사동과 대학로를 '상업성'이라는 단색으로 도배해 버렸다. 그렇기에 "정부가 살아야 36억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인사동의 상업화를 부추겼다"고 말하는 한 상인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메아리

### 약속 위반

▲"원술로부터 군량미와 마필은 아직도 오지 않았느냐?" "예, 아직까지 별다른 기별조차 없다 하옵니다." 소설 삼국지에서 손권이 낙양을 공격할 때, 원술로부터의 군량미가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대목이다. 나라의 역적인 동태를 처벌하기 위해 각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낙양으로 계속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이 때 원술은 각 부대에 군량미를 조달,

지원하는 역할을 여러 제후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손권이 공을 세워 자신보다 높은 지위를 얻을까 두려워 일부러 군량미와 마필을 지원하지 않았다. ▲12년 간 갈고 닦았던 실력을 400분만에 쏟아내야만 하는 수확능력시험이 지난 7일 치러졌다. 시험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의 얼굴에는 허탈함과 황당한 표정만이 가득했다. 예년에 비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너무 쉽게 출제된 '물수능'의 여파를 가라앉히기 위해 출제당국이 선택한 '불수능'으로 인해 고3 교사들은 진화지도는 커녕 총격에 빠진 수험생들을 위로하기에 바쁘다. ▲더욱이 '이해한 1세대'라 불리는 현 고3 수험생들은 그 명성에 걸맞게 보충수업·자율학습 폐지, 모의고사 응시횟수 제한 등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적성과 특기만을 살려 공부하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된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내세웠던 '수능의 변별력과 비중을 낮추고 내신성적과 면접을 중심으로 수험생들의 특기·적성을 평가해 선발한다'는 것 때문에 그 여파는 더욱 크다. ▲손권이 치렀던 전투는 결국 원술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패배하고 말았다. 동태를 처형하지도 못하고, 연합군간의 불신감까지 조장하게 되었다.

현재 고3수험생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결국 앞뒤 안맞는 교육정책에 4년간 희희당하던 셈이 아닌가. 더 이상 학생들을 희롱하는, '교육지책'인 '교육정책'은 필요치 않다. '이해한 1세대'의 절망과 분노에 대한 대책으로 당국은 또 어떠한 '교육지책'을 내놓을지 염려스럽다.   
박현호 편집부장  
blue@mail.dongguk.ac.kr

### 소나기

이런 공약에 한표를...



- △입학할 때 수능점수 반영하지 말아주세요.
- △건물 내 중앙에 흡연실 설치하라.
- △학생들이 주인되는 학교를 만들자.
- △식당메뉴 좀 다양하게...
- △쓸데없는 데모하지 말고 학생들 복지에나 신경 쓰세요.
- △수강신청 3개 이상 수정 가능하게 해주세여~
- △장학금 주면 짝습니다.
- △등록금 동결!
- △흡연공간 보장하라.
- 담배를 왜 숨어 피나구요.
- △중앙도서관 사물함 설치.
-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간 중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병원 완공 시 이용 혜택 15%를 주장하시오.
- △학내곳곳 TV설치, 월드컵을 위하여~
- △학교 곳곳에 폭신타를 만들겠습니다.
- △수고한다고 진실이 사라지지는가.
- 대학생다운 지성을 가지시길.
- △명진관에서 총무로까지 케이블가 운영!
- △테니스코트를 돌려라!
- △복지시설 확충!
- △축제를 화끈하게 하겠다는 공약.
- △사무실 문이 닫힌 학생회는 원하지 않아요.
- △등록금 투쟁 잘하는 후보가 좋아요.
- △학생들에게 보이기가 아닌 공약을 내세워라.
- △학교에 벤치를 많이 설치해 주세요.
- △휴식공간을 확보해 달라.
- △음식의 질 보장한다는 공약사항은 없나요?
- △동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회의 모습을 원한다.
- △발판 하는 학생회는 필요 없어요.
- 행동으로 공약을 실천하라.
- △학생들이 원하는 걸 해주겠다는 공약.
- △잔디구장을 깔아주는 후보에 불표를.
- △자치권 확보를 외쳐라.
- △남학생실을 만들어 주겠다는 사람은 왜 없는 건가요?
- △우리를 위해 달려라.
- △空호기 아닌 公約을 하는 사람.
- △솔직히 기권하고 싶다. 요즘 같아선...

### 흡연은 흡연구역, 콩초는 쓰레기통에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 담배의 전쟁은 시작된다. 강의실을 나서면 나의 앞을 가로막는 건 담배연기, 그 속을 헤쳐 나가는데 내 일상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언제부턴가 강의실 앞에는 뿌연 담배연기 뿐이며 비흡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흡연구역이 엄연히 정해져 있지만 요즘은 모든 곳이 흡연구역이 되어버렸다. 흡연자는 모르겠지만 담배연기를 맡는 사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본 마음으로 들은 교정에서 다른 사람이 뱉어내는 담배연기를 마신다는 것 때문에 기본이 자주 상한다. 또한 간접 흡연이 담배를 직접 피는 사람보다 인

체에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담배의 문제는 담배연기 뿐만 아니다.

담배콩초가 복도는 물론 교정의 길가와 화단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학교는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다. 더불어 생활하는 학교 안에서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배려로 서로가 기본 상하는 일이 없도록 흡연은 흡연 구역에서만, 그리고 담배콩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그럴때 모두들 웃으며 강의실 밖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태훈 (자연대 수교2)

### 문창과 제회 문학기행백일장 장원 수상작 '스무살'

스무살은 감기처럼 온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코가 뻑뻑하고 온몸은 바늘로 찌르듯 아린다. 감기 중에서도 독감이다. 이 스무살이라는 독감에 걸리면 약도 쓸 수 없다. 제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는 사춘기에는 이 독감의 공포를 알지 못했다.

그때는 스무살이면 날아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어디로 날아갈 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멋지게 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은 확신했다. 그런 나에게 스무살이 찾아왔을 때 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스무살은 날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멋진 것은 더더욱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눈앞의 길조차도 보이지 않는 나이였다.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나는 제자리에 앉아 누워 버렸다.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간다는 건 고통과 절망뿐이었기 때문이다. 드러누운 나는 실컷 신음하고, 마음껏 얼굴을 부렸다. 아직은 이마를 짚어 주는 손길이 남아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게 바로 스무살이다. 감기처럼 아프지만, 가아할 길도 볼 수 없지만, 그 자리에

드러누워 투정을 부려도 용서받을 수 있는 나이. 어쩌면 작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용기 있는 스무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도 독감에 걸린 것은 마찬가지이다.

난 1년 동안 독감을 앓고 있다. 이 감기가 언제 달아날지 모른다. 쫓으려, 쫓으려 해도 나의 폐에 찌꺼기 달라붙어 천소리나는 숨을 내뿜어 쉬게 만든다. 아마도 길이 보일 때까지는 핑계삼아 이 스무살을 계속 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엄살같은 건 부리지 않기로 했다.

아프다고, 아프다고 이 몸의 감기를 물고 늘어지면, 창개구리처럼 감기는 심술을 부린다. 만약 이 스무살의 존재를 모르는 척 한다면, 아마도 스무살은 재미를 잃어 버려 나를 떠날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그때를 마냥 기다린다. 이제는 스무살이 떠난 후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길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어야 할텐데... 아마도 독감은 한 번으로 끝을 맺지 않을 작정인가 보다.

강빈나 (문과대 문창2)

### 학술제 참여로 다른 전공 체험기회 넓혀야

몇 달 전 선배들에게 '학술제'란 말을 들었을 때 확실한 정의를 알지 못한 나로서는 당황스러웠다. 선배들에게 학술제에 대해 물어보니 과 행사이고 또 과 내 동아리에서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나는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자료를 위한 그림이나 모형 만들기를 전시하는 미술 동아리인 '붓을 든 아기 부처'란 동아리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근히 각성이 됐다.

술제를 통해 선배 언니들, 동기들과의 친목이 더 두터워진 것 같아 너무 좋았다. 그러나 우리 동아리의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지 못하고 유치원 아이들과 우리 동아리를 아는 몇몇 사람들만이 관람을 해서 못내 아쉬웠다.

앞으로 우리는 자기 과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 학술제에도 참여함으로써 다른 전공을 잠시나마 체험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희경 (불문대 불동1)

### 학생복지 힘쓰는 학생회로

요즘 서울캠퍼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은 학생회 선거일 것이다. 4년 만에 다가온 경선이 더욱더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갑측과 을측의 경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갑과 을의 가장 큰 차이는 한총련에 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학생 복지에 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때 이 사안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리라 고 본다.

대학생 중 한총련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학생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학생회가 운동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

학생회는 학생복지에 관한 일들을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운동을 하는 단체를 학내에 따로 결성해 두면 어떨까?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라도 당선이 되면 학생복지를 위해 힘써야 하며 말뿐인 공약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박혜원 (사과대 사회2)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편파적 보도 삼가해야

최근 인터넷내용 등급제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를 피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사이트들을 많이 보았다. 지난호 '통신질서 확립법'에 관한 두 기사는 그래서인지 자연스레 관심이 가게 됐다.

하지만 두 기사는 정부의 통신질서 확립법에 무조건적인 반기를 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대부분의 기사 내용이 동의를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정부의 법에 대한 반대 의견만을 다루는 것은 자칫 편파적인 방향으로 기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차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 또한 밝히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옹호하기보다는 장단점을 모두 다뤄 독자도 하여금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신혜미 (문과대 문창2)      허경희 (자연대1)



(제1330호 11월 5일지)

### 최선의 자세 배운 계기

골프라는 스포츠를 접하게 된 때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비교적 상류계급만이 누릴 수 있는 스포츠로도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박세리 등을 비롯한 여성골프들의 활약으로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접하기 쉬운 스포츠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 와중에 우리학교에 PGA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프로골퍼가 있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오솔길을 읽고 그에게서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허경희 (자연대1)

### 복사기 문제 개선방안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내 건물에는 복사실이 있으며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도록 무인복사기가 비치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캠 자연과학관 학생들에게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 1층에 있는 무인복사기가 고작이며 1대의 복사기마저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하기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인복사기는 시간과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시간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사용되어야 할 이 복사기가 학생들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있다면 과연 설치의 이유가 있을까? 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복사기 고장과 용지부족의 문제를 줄이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종이 절첩이나 간단한 고장에 대처해 수리방법의 설명을 그림과 함께 덧붙인다면 학생들은 손쉽게 고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지를 가까운 교학관에 비치해 둔다면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복사기라면 마땅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남승우 (자연대 화학3)

### 소중한 아버지의 자리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는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난 지금까지 입학, 졸업, 생일 등을 아버지 없이 어머니, 언니와 같이 보내야 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재미나 놀이를 하던 시절 이후로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나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더 외롭고 딸과 아내가 그리울 것이다. 나와 언니, 어머니는 언제라도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외로이 떠나면 베트남 땅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가끔 하는 전화통화도 귀찮게 여긴 것이 후회가 된다.

난 요즘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완전히 돌아오시기 되는 날만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 날 난 아버지가 베트남으로 가셨던 열세 살 어린 시절로 돌아가 지금껏 충분히 만들지 못한 아버지와와의 추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위에서 아버지의 잔소리를 귀찮게 여기고 투덜거리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난 가끔씩 그들이 부러워진다. 따듯한 충고를 하는 아버지조차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소중한 아버지에 대해 더 생각하고 말해주고 싶다.

권미림 (사과대1)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upress  
나우루넷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동악광장

####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헬스여짜개(1500) 참치김치볶음(1500) 생선가스(1500)
화	만두육개장(1500) 하이리이스(1300) 닭조림백반(1500)
수	김치수제비(1300) 쇠고기볶음밥(1500) 오징어달걀(1500)
목	양지탕(1500) 마파밥(1300) 제육달걀(1500)
금	사골우거지탕(1500) 탕수민두(1300) 불고기버림밥(1500)

(단위:원)

####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두부된장찌개(1300) 치킨볶음밥(1500) 비빔밥(1300) 떡만두국(3000)
화	소고기장국밥(1500) 오징어가스(1500) 소고기버섯달걀(1500) 버섯통깨탕(3000)
수	복어숙여짜개(1500) 계란볶음밥(1300) 돈간짜개(1500) 오징어불고기(3000)
목	떡만두국백반(1500) 돈육고추장불고기(1500) 콩나물잡채(1300) 꽃고추된장찌개(3000)
금	설렁탕(1500) 케리리이스(1300) 콩비지찌개(1500) 불고기백반(3200)

(단위:원)

우리를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무채국(1300) 참치야채비빔밥(1500) 해물볶음밥(1700) 치킨가스(1800)
화	사골무국(1300) 오징어제육볶음(1600) 짜장달걀(1700) 스페니쉬볶음(2000)
수	짬뽕국(1300) 해물볶음밥(1600) 불고기달걀(1700) 전주비빔밥(1800)
목	콩나물국(1300) 케리리이스(1500) 김치볶음밥(1600) 새우가스(1800)
금	알갈이국(1300) 마파두부달걀(1500) 미트볼달걀(1600) 불낙달걀(2000)

(단위:원)

### 목격글

추하합니다

△원철이의 제대를 축하한다. -송철  
△경육오빠 생일 축하해요! -팬클럽 회장  
△95학번 권진수 생일 축하해! -HAM21th  
△순신아 22번째 생일 축하해! -친구가\*  
△신방과99 김병영군의 휴가 축하해요.  
△11월 16일 현정이 생일 축하해. -원제가  
△95학번 강태랑 생일 축하한다. -참사람 4기 일동  
△99년 총대사무장 장가가다. 모두모두 축하해 주세요. -33대 총대 중앙위

### 수고하셨습니다

△정치외교학과 모의국회 연기탑 수고하셨습니다. 연출 재홍형님을 비롯한 연기탑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담대표

### 은방글

추하합니다

△소나비 13기 풍자반 박수진,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해~임!! -험미가  
△11월 14일 선미와 석영이의 900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선미  
△11월 12일 울 석이와 300일 되는 날이예요. 축하해 주세요! -애기가  
△준건아, 정해야 축하한다. -18기 일동  
△가람, 주철, 민호형 난장르트들 가요제 2등 축하해요. -PJH  
△대건이 23번째 생일 축하해. -J  
△11월 13일 소리창고 정기공연 축하해요. -개미  
△울 아가(?) 이쁜 진희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정연니  
△국동아, 생일 축하한다. -세훈

### 은방글

수고하셨습니다

△안·공 일일여러분, 학술제 준비하시느라 수고했어요. -95짱  
△일문과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학술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정&남미

### 열심히합니다

△11월 17일은 마음소리 10회 공연이 있는 날, 연습기간 열심히 합니다.  
△박 교수님, 문제 애들 열심히 하였습니다.

### 그리고...

△폴핀스 5:5 클럽, 남 사랑해. 글구 항상 행복하길. -Y  
△사모모! 첫 번째 미팅 잘해.

#### 경주캠 원호관 교직원 식당 차림표

월	제육김치볶음·들깨미역국(2500) 오징어달걀(3000)
화	아재계란찜·오징어찌개(2500) 생선가스(3000)
수	낙지해물콩나물볶음·닭고기밥(2500) 갈비탕(3500)
목	사태떡볶·추야탕(2500) 김밥+갈국수(2500)
금	가지미조림·복어달걀국(2500) 비빔밥(2500)

(단위:원)